

“화합과 상생하는 협의회 만들어 나가겠다”

차기 도협의회 제6대 회장 고치환 후보 당선



▲ 지난달 2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개최한 결과 제6대 회장에 고치환 후보가 당선됐다.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신입 회장에 기호2번 고치환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를

개최했다. 그 결과 93표를 획득한 기호 2번 고치환 후보가 67표를 얻은 기호 1번 한형범 회장을 누르고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인 수 172명 중 투표자 수 160명, 기권 12명)

고치환 당선인은 한일장신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 평안전문 요양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회원, 행복한 협의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고 당선인은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와 의제발굴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제안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복지사랑방을 마련해 소통하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복지와 공공복지, 도의회 간담회를 정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인사 관련 추천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능별 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및 조정,

연계, 협력의 역할을 하는 ‘컨트론타워’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또 ‘맞춤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시설/기관은 물론 소규모시설/기관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분야 종사자의 처우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의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성하는 개인 및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크게 확충해 회원

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후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선이 돼 기분이 좋은 것보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 까 걱정이 앞선다”라며 “최선을 다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해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일곱 빛깔이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이라며 “차기 회장으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상생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12일까지로 3년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직업재활시설협회 도협회 1030대회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8)

■ 사회복지소식 4·5면
서귀정복, 자조모임 연합발표
주인과 함께 하는 ‘오픈데이’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기고

■ 기획 7면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블라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광고 8면
‘명예전당’ 등재자 추천안내



12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1회기마다 각각의 주제를 갖고 그에 관한 이야기 및 상처 치유하기	12월까지 / 12시~14시 / 무료 /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728-4075
	희망충전소: 삶의 희망을 찾아서	자살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희망과 힐링에 관한 프로그램(총8회기)	~12월16일까지 / 매주 월, 목 10시30분~11시30분 / 센터 내 프로그램실 /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2013 학술회의 & 송년의 밤	청인과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한 소통의 방법, 100세 시대 건강한 식습관 교육	14일(토) 14시~20시 / 도협회 2층	757-2120
	수화프리즘 - 2014년도 1분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수화 초급, 중급, 고급반 개설	2014년 1월 7일(화)~3월13일(목) 3개월(총20회) / 19시~20시(화,목) / 제주시지부 교육장(탐라정복 3층) / 수강료 초급(3만원), 고급(4만원), 고급(5만원)	
	수화기초회화반 “수어로 대화해 봅시다”	수화기초회화반 개설	2일(월)~24일(화) 1개월(총10회) / 10시~11시(월~수) / 제주시지부 교육장(탐라정복 3층) / 수강료 3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 재능발굴지원 ‘키움터’	문화·예술·스포츠분야 활동지원 / 40세이상 등록 장애인 / 11명(1인 최대 150만원)지원	3차모집 12월 5일~18일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mail 제출	702-0295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작품발표회	댄스, 악기연주, 노래 등 작품발표	6일(금)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726-8388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지역주민 욕구 조사 등	19일(목)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새터민, 다문화)과 함께하는 송년 한마당 잔치	지역주민간의 소통단합의 기회 제공	26일(목)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직업재활시설협회 道협회 1030대회 개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최영열)는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2013년 제주협회 1030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일

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시 메이즈랜드에서 지난 10월 17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상호 유기적 연대와 연합의 장을 가졌다.

道자원봉사센터, 퇴직공무원지원센터와 MOU체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와 공무원연금공단제주지부 퇴직공무원지원센터(지부장 윤종기)는 상호 간의 우호증진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재능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동 운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



복지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사는 세상의 즐거움’ 평가회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15일 ‘함께사는 세상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된 2013년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회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용장애인을 비롯해 강사,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년 동안의 진행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중재활프로그램은 이



용인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요가프로그램과 지역사회문화체험 학습을 통해 이용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서귀포지역자활, 미리내 가게 현판식

서귀포ilter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나눔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 자활기업 찬찬찬 밀반찬판매점과 친환경제품 판매장 자연이다 사업단에 기부 프로그램인 미리내 가게를 도입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리내 가게는 (먼저와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값까지 미리 기부하는 신개념 나눔운동이다.

서귀포ilter나눔지역자활센



터 임철남 센터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 기부프로그램인 미리내 가게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나눔 실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담라이온스

제일지역아동센터 후원

용담라이온스(대표 강민수)와 회원 일동은 지난달 초 제일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영식)를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의류와 책 등을 전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

‘꿈을 그리는 몽당연필’ 제막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꿈을 그리는 몽당연필’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15명의 아동과 함께 6회기 동안 ‘장래희망’, ‘사랑하는 사람’, ‘명화’ 등의 주제로 도자기판 위에 자유롭게 그리고 구워 만든 타일을 기관 복도 내벽에 부착하여 전시됐다. ‘꿈을 그리는 몽당연필’은 학대피해아동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미술활동 및 현장체험활동, 도외 진로탐색캠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창암교육활동센터

You&I&We 건강트라이앵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이용자들의 기초체력 단련, 비만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You&I&We건강트라이앵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육활동은 체육전문강사의 진행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감각기능 및 표현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패션쇼 개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지난달 31일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백제예술대학교 모델학과 대상생과 주민자치위원, 어린이와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꾸는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백제예술대학교 모델학과 학생들의 오프닝 패션쇼를 시작으로 노래와 춤, 퍼포먼스, 패션쇼 등으로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구좌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체험위주의 어린이 직업체험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구좌읍 덕천리에서 살고있는 백제예술대학교 최미애 교수의 재능기부로 시작됐다.

고현수 상임 대표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수상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13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에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 상임대표가 수상한다.

고현수 대표는 지역사회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제도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됐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장애인복

지활동가상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사회통합, 권익옹호를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한 활동가에게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케어하우스

소방훈련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장생)는 이용자와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훈련은 지하식당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생시 통보요령, 초기화재 소화진압훈련, 이용자 대피유도, 소방차 출동 시 유도 및 지원요령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으며, 훈련강령 시간에는 제주소방



서 이도119센터로부터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케어하우스 김장생 원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1월 식품기탁자

▲고태홍씨=감귤 1040kg, 식용유 4개	▲안신희씨=채소류 19.3kg	▲금강축산유통=육류 683kg	▲김치원=김치 72kg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1302개	▲빵피아모=빵 34봉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70모
▲손뜻모아봉사회=가래떡 120kg	▲온누리봉사회=가래떡 100kg	▲울곡어린이집=이불 15채	▲이든이네=멸치 7.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17kg	▲제주마쌈=비타민 40상자, 육류 500kg	▲제주보리촌=보리빵152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참쌀 16kg, 주방세계 56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50팩	▲커브스노형클럽=피복류 59개, 우산 19개	▲파라바게트동광초점=빵 305봉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쌀 20kg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190,000	1,19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385,000	385,000
복지사업후원	1,105,000	1,185,000
푸드마켓후원	2,855,000	7,257,6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8)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함께하는 “나눔멘토링”



▲몽생이 기자단은 지난 11월 23일 ~ 24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SNU멘토링 캠프에 참가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 1박2일간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조금은 특별한 캠프가 진행됐다.

23일 ‘나눔멘토링’ 캠프에서는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오현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

여 ‘나눔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을 함께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

랜 친구, 친언니 오빠들인것 마냥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나눔과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도내 다양한 장소에서 젊은이들만의 감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동영상에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24일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학습법 및 진학에 대한 학습코칭 재능기부의 시간이 마련됐다. 모둠별 ‘학습코칭’ 활동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다양한 현장을 찾으며 중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울대학교 대학생들과의 만남보다는 ‘언니·오빠’와의 만남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멘토링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는 전국적으로 SNU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서울대 멘토링은 서울대학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멘토링이며 서울대 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 멘티를 스누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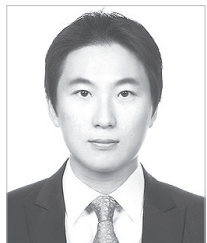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중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울대 학생과 1:1로 연결되어 온라인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생활 등에 대한 정보와 조언, 상담 등 멘토링을 원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한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④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다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라도 17세 이상이면 유언능력이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

사망자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뜻 중에서도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서 인정된 일정한 것에 한합니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 지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번 서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더 써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또한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8. 비밀증서로 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로 해 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으로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 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심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서귀장복, 자조모임 연합발표회 성황리 개최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동홍아트홀에서 복지관 자조모임 및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동홍아트홀서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복지관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5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서귀포시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장애인 노래교실-황혼의 칸타빌레, 스포

츠동우회 사업성과 발표, 대정아이꿈터와 천사의 집 악기연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동우회 사업소개를 비롯해 제주행복기재단이 작성한 기고글에 대한 작품기고, 콘서트, 동우회원과 지역주민들의 기고글 평가 등이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문화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이 동우회/자조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유관시설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놀이마당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은 지난 10월 26일 위탁가정 및 자원봉사자 등 210명과 함께 ‘2013. 어린이 놀이마당 신나게 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를 진행했다.

이번 놀이마당은 추억의 운동회와 매직풍선,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 촬영과 같은 체험마당을 마련해 위탁아동과 양육자, 자원봉사자가 함께 추억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빛누리실버연극단 경로당 공연 펼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소속 6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지난달 15일 제주시 연동경로당을 찾아 연극공연을 펼쳤다.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무대는 극중 아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에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어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도사회복지관협회 이동복지관 ‘츠자와수다’ 추자도 운영



이동복지관 ‘츠자와수다’가 지난달 15일 추자도 추자체육관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이동복지관 사업은 추자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기부단체 느영나영가요단과 제주비색소폰단원들의 문화공연 서비스를 비롯해 이·미용서비스, 장수희망주석 사진, 네일아트, 수지침, 수세미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핸드폰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소/식/마/당

삼양초 문화예술동아리 악기 발표회



삼화요양원은 지난달 14일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삼양초등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악기별 발표회를 가졌다.

삼화요양원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삼양초 3~6학년 25명이 참가해 리코더 및 기타연주, 노래와 난타공연을 펼쳤다.

특히 요양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민요와 어릴 적 불렀던 동요 등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웃음치료 실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근)는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모교육 웃음치료를 실시했다.

웃음전도사 이상숙 강사와 함께한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삶의 활력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리더십평생교육원 MOU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와 성공리더십평생교육원(원장 강성두)은 지난달 15일 성공리더십평생교육원에서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14년에는 보조인력 1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태고원, 어르신 가을나들이



제주태고원 어르신 27명과 직원 10명은 한울간병회 봉사자 20명과 함께 매직아일랜드와 세계자연유산센터로 가을나들이를 떠났다.

이들은 다함께 공연도 보고 건강에 좋은 오리백숙을 먹으며, 시설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원내 생활의 무료함을 해소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불교사회봉사회, 난방비 성금



제주불교사회봉사회(회장 한연수)는 지난달 13일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을 찾아 근로장애인의 겨울난방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제주불교사회봉사회는 정기적으로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효돈중,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



효돈중학교는 위미에덴요양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춤과 사물놀이, 난타, 플루트, 기타 등의 재능을 어르신 앞에서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만든 사랑의 빵을 나누는 행사를 함께가져 어르신과 학생, 교사 모두 즐겁고 행복한 자리를 가졌다.

제주복지관, 주민과 함께하는 ‘오픈데이’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달 16일 제주종합사회복

지관 곳곳에서 복지관이 하는 일을 오픈해 보여주는 ‘오픈데이’를 실시했다.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 희망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비롯해 사회교육(동화구연, 종이접기, 미술교실), 피아노연주회,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을 진행했으며, 가훈짓기대회와 경품추첨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천원의 행복’이라는 테마로 먹거리 바자회가 진행됐는데, 다문화 가정의 직접 만든 월남쌈과 라이스 푸딩 등을 선보여 지역주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모인 금액은 다문화 가정과 제주도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순복음복지관

치매어르신과 가을소풍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생명보험 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등급 외 치매주간보호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지난 10월 15일 가을소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별도봉 아래 부닷가 매립지를 방문해 가을소풍의 기분을 만끽했으며, 일도지구 오리천국에서 오리음식나눔을 진행했다.



제주지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0개소 설치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는 도내 장애인복지기관 및 병원 등 10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충전기는 일반 충전기에 비해 동일거리 충전시간을 1/4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위급상황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참여 활동범위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성복지관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체험나들이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이주여성들을 위한 사회기능향상 ‘빨간등이 파란등이 어울리는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제주의 고유한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김봉한 관장은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귀포복지관, 가족여행 진행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흥기)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이날 가족들은 축협문화센터에서 피자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체험을 했으며, 별난물건박물관과 녹차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시간에는 가족구성원들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적어보고 발표해봄으로써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구좌동네밴드, 동아리 무대경연대회 참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의 성인문화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는 ‘구좌동네밴드’가 지난달 16일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동아리 무대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른 이들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교실



에 참여하는 18명의 구좌지역 성인남녀 중 5명이 선발돼 참가했다.

엘린, (주)트라이앵글과 기술협약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엘린(대표 한봉금)은 전문 기술력 보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주)트라이앵글 건물전문관리업체(대표 김득환)와 기술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협약은 청소용역의 건물바닥관리(대리석, 화강석, 카펫)의 전문성을 위한 기



술보유와 청소용역 운영컨설팅 등이다.

제주장북, 장애아동 위한 교재교구 작품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5일 복지관 3층 강당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작품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4~30일까지 장애아동의 효과적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내 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재교구를 접수받고 전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요요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를 비롯해 총 11명의 장애전담교사가 수상했으며, 연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및 부



상을 수여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요요어린이집 양옥 교사는 “장애아동의 교재교구 개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자료집으로 제작 및 배포해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2013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는 오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2층 다목적실에서 ‘2013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사회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아인, 수화통역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세 시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농사회에서의 소통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으로 열릴 예



정이다.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농아인과 청인이 서로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사라의 집

100세 어르신 생신잔치 개최

제주사라의 집(원장 현경훈)은 최고령 100세 어르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

축하공연으로 매달 사라의 집에 봉사하고 있는 참사랑 봉사회에서 생신잔치에 방문, 신명나는 노래를 연주해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손뜻모아봉사회

푸드마켓에 가래떡 기탁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지난달 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가래떡 120kg을 기탁했다.

손뜻모아봉사회는 매년 가래떡 나누기 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도장애인부모회,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맞춤형 여가·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맞춤형 여가·문화활동은 난타(타악기 앙상블), 수영(사라봉수영장), 스네그골프(부모회 교



육장), 에어로빅(제주소프츠문화아카데미) 등 4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칼럼

12월에 쓰는 후회 리스트와 기쁨 리스트



김범훈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오늘로 뱀띠 해인 계사년이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새해인가 싶더니 어느 덧 한 해의 끝자락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회상해 본다. 안타까움과 함께 왜 그렇지 못하였지, 왜 그렇게 하였지 하는 후회스런 날들이 뇌리에서 파노라마를 엮어 낸다. 이럴 때면 차가워지는 겨울 날씨마저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한 해 마무리, 색다르게

하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나날 속에서도 밭에서 땀 흘린 수확의 기쁨마냥 가슴 뿌듯하게 하는 보람들이 떠오른다. 비록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마음 가득한 결실을 맺은 이야기는 무척이나 아름답

다. 어려운 이웃돕기 온정은 진한 감동으로 번지면서 우리사회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기 녹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후회와 기쁨이 교차하면서 연말분위기는 서서히 다가온다. 그럴수록 바쁘고 힘들겠지만 하나 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올 해 마무리를 예년과 달리 색다르게 하고 싶다면, ‘후회 리스트’와 ‘기쁨 리스트’를 써 볼 일이다.

후회 리스트는 말 그대로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백지에 써넣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때 참았더라면’, ‘그 때 조심했더라면’, ‘그 때 배웠더라면’, ‘그 때 귀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뉘우침이 솔하게 묻어나온다. 심지어 ‘그 때 술값은 내가 낼 걸’, ‘그 때 조문을 갈 걸’ 하는 속 좁음엔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후회도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었던 일이 아닌가 싶다. ‘하는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화종구출(禍從口出)은 결국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말은 생각과 인격을 담은 그릇이라 했는데, 삶의 기본이 부족함 때문일 터이다.

후회 리스트는 매사에 ‘지금’(또는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이요,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후회 리스트는 ‘지금’에 대한 고해성사인 셈이다.

기쁨리스트, 삶의 활력소 될 것

여기에 기쁨 리스트는 자신의 삶에 있어 커다란 희망의 활력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쁨을 개인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기쁨 가운데 자신과 관계된 기쁨만이 가장 크게 가슴에 와 닿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누는 기쁨 역시 건강한 사회로 가는 비타민이라는 점이다.

올 12월에 강추(강력 추천의 약어)한다. 후회 리스트와 기쁨 리스트를 쓸 일이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푸른 말(馬) 띠 해인 갑오년 2014년을 앞두고, 이로써 새로운 탄생을 기약하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한다.

시론

머리없이 손과 발만 움직이는 양상, 복지사무관 배치해야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무릇 정책이란 대상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밑바탕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대상자의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헤아려야 하며, 이의 해소를 위

하여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포함된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예산 낭비의 사례로 회자되는 여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좌우하게 된다. 즉, 정확한 욕구 파악 및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 집단이 정책 결정해야

그런데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제주도정 실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제주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167명으로, 이 중 9명만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00명과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제주시 51명, 서귀포시 30명 등 총 81명이 43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 특성상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이유로 행정시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확대되어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정책 또는 시책을 결정하는 도청 사회복지 부서에 달랑 9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공공복지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복지사무관이 도청에는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은 머리없이 손과 발만 움직이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들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이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없이 복지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재 제주도정은 실태조사도 없고, 전문가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사회복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한 해 60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이 대상자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되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도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1명 이상의 복지사무관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들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획 및 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양 행정시 역시 복지사무관 배치로 대상자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읍·면·동에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한다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사무관 배치 확대도 예산 낭비를 막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행정체계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등 서비스 제공의 최고 책임자의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에 의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질 때,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노력



문영방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1987년도만 해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이어서 업무량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은 복지관련 업무가 수백개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жат은 야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신변까지도 위협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금년 사회복지 공무원을 당초 8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18명으로 확대 채용하고 금년 12월중에 기본교육을 마친 후 일선 복지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관련 부서장 직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특히,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장에 대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3만

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3년이 상 담당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대폰 번호 노출로 야간까지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관련부서별로 기관 공용 휴대폰을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등의 폭언, 폭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파출소와 CCTV·비상벨을 연결하여 경찰 즉시 출동체제도 구축할 것이다.

내년에도 복지직렬 공무원 신규충원을 확대함은 물론 신규공무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멘토링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충원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장의 복지업무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서비스를 수혜 받는 도민들도 크게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각장애인 공포의 대상 ‘볼라드’... ‘사람 잡겠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모니터링센터는 지난 달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구도심권 볼라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심권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부분 ‘규정위반’...재질·높이·간격 부적합 ‘수두룩’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세워진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물론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모니터링센터(이하 인권포럼)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구도심권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포럼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구도심권 횡단보도 및 인도 진입로에 설치된 볼라드 400개소, 1295개를 조사한 결과 228개소 356개의 볼라드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볼라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의미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내외로 설치 ▲간격은 (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해) 1.5m 내외 ▲볼라드 재질은 탄성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볼라드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식별이 용이도록 표면에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칠

해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볼라드의 재질은 돌로 만든 곳이 280개소(70%)에 달했으며, 금속과 고무가 섞인 우레탄 재질을 사용한 곳이 76개소(19%) 금속재질은 28개소(7%), 기타 16개소(4%)로 조사됐다.

볼라드의 높이 역시 전체의 95%에 달하는 379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볼라드 지름 역시 300개소(75%)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높이 규정을 지킨 곳은 21개소에 불과했으며, 지름 규정을 준수한 곳도 100개소에 그쳤다.

볼라드 간격은 167개소(42%)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식별여부는 185개소(46%)가 부적합, 215개소(54%)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볼라드 앞 점형블록의 설치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1개소(80%)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9개소(20%)만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나 현행 구도심권의 볼라드는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았

으며 ▲설치된 지점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단단한 재질로 제작했으며 ▲불필요하게 여러 개를 좁게 설치했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도 설치해놓았고 ▲파손돼도 관리하지 않는 점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전수조사를 통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아직까지 볼라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볼라드에 피해를 입은 한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어 이번 인권포럼의 조사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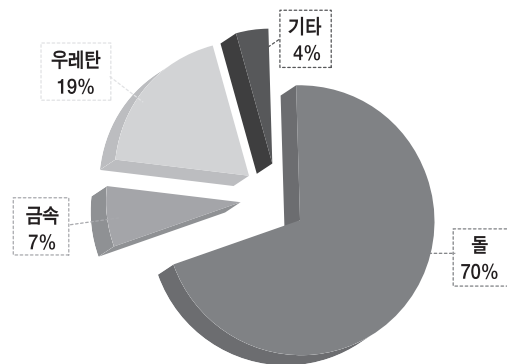
시각장애가 있는 김모(여, 59세, 시각장애1급, 인천 부평구)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재판부는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각장애인과 충돌 위험성이나

충격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정성을 구비해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 있는 볼라드는 높이와 지름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료도 석재로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설치·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단 원고 측의 과실과 볼라드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안산시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불법주차를 막는다는 이유로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공포의 대상”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치된 볼라드에 부딪혀 다친 것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향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볼라드 재질별 현황



제4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등재자 추천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공적 및 활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명예로운 자원봉사자로서 영원히 기록됩니다.

추천대상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현재 활동 중인 개인이나 단체, 타계한 자원봉사자)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 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또는 단체
-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

추천자격

제주도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대표

제출서류

- 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나. 상반신 명함판(3cm×4cm) 사진 2매
다.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사진, 인쇄물 및 신문스크랩 등)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13. 11. 18(월) ~ 2013. 12. 6(금)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690-8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화번호 : (064)702-3783~4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등재기념 순금뱃지 시상
- 등재기념패 증정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